



## 미국 빈곤층, 새로운 추정방법 사용에 따라 300만 명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1월 7일 미 통계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정한 빈곤층 인구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4,900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.

- 2011년 9월 발표한 빈곤층 인구는 전체인구의 15.2%인 4,600만 명으로 나타났으나, 의료 및 주거비용,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추정한 빈곤층 인구는 전체인구의 16.0%인 4,900만 명으로 300만 명 정도 증가함.
- 새롭게 변경된 빈곤층 기준은 식료품 지출 비중을 축소하고 의료비용 및 주거비용,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산출함.
- 새롭게 산출된 빈곤층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2만 4,343달러로 9월 조사 때 2만 2,113달러보다 10% 가량 증가함.

■ 빈곤층을 연령 및 인종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와 흑인의 빈곤율은 감소하고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, 노인들의 빈곤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빈곤층 증가의 주요인은 의료비용 상승, 교통비용, 자녀 양육비용 등인 것으로 나타남.

- 의료비용을 감안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은 9월 9%에서 15.9%로 크게 증가했으며, 18세 이하 인구의 빈곤율은 22.5%에서 18.0%로 감소함.
- 히스패닉계의 빈곤율은 28.2%를 기록해 처음으로 흑인의 빈곤율(25.4%)을 넘어섰으며, 이는 히스패닉의 경우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- 또한, 주거비용을 감안하면서 주택소유자와 도시지역 생활자의 빈곤율이 상승하였고, 빈곤율 상승의 주원인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용, 교통비용, 자녀 양육비용 등인 것으로 분석됨.

(Financial Times, 11/7)